

국내 조선산업 완전한 부활 꿈꾼다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지난 2017년 이후 약 4년 7개월 만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 체결, 4년 7개월만의 회생

시는 지난 2월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전라북도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재가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가동 첫해인 2023년에 연간 10만톤 규모의 컨테이너 선박용 블록 제작을 시작으로 물량을 늘려나가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LNG·LPG 선박용 고부가가치 블록 생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기 가스 연결 등 공장수리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4월중 사내협력사 모집 완료 및 군산조선소 본사 직원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재가동 지원을 위해 5월중 전라북도와 함께 600여명의 교육훈련생을 모집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지원에 나서고 협력사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현대중공업 재가동 정상화까지 협력사에 물류비 지원 및 고용보조금, 복지후생, 노선버스 운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주력산업을 이끄는 원동력 '군산조선소' 지역 경제 활성화 촉매제 역할 기대

군산조선소는 군산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5,000여명의 인력이 초대형 원유운반선, 대형 LPG운반선 등 총 85척의 선박을 건조했고, 86개 협력업체 및 62개의 기자재업체와 함께 군산 경제의 1/4를 책임져왔다.

이제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됨에 따라 내년부터 블록 제작을 위해 최소 600명~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본격 창출되고, 이에 따른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약 1,98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향후 협력업체, 기자재업체가 다시 문을 열고 완전 가동이 이뤄질 경우 최대 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의미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일리는 상징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군산조선소가 LNG·LPG 추진선 블록을 생산



가동 중단된지 4년 7개월 만에 재가동 협약 체결... 내년 1월 재가동

중소형 선박 품질고도화 구축 연계 중소기업·친환경 기술시장 선도

군산시, 숙련인력 유지 힘써와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기반 보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세계 점유율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군산에서 추진 중인 '중소형선박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을 연계해 선박 기자재의 신뢰성 향상을 이끌어내 중소기업·친환경 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군산항에 2023년까지 완료될 1만 톤급 중량물 운반 지원선 건조를 통해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박운송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관광선·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MRO) 구축



지난 2월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 전라북도와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재가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



도 새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된 만큼 향후 군산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조선산업 인프라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노력의 결실

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용·산업위기 지정을 통해 조선 협력업체 지

원, 퇴직자 재취업 등 숙련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왔고, 군산형 경제회복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 왔다.

또한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콜러스터, 자동차대체부품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며 지역경제 기반을 보완해 나갔다.

이와 함께 재가동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시는 지난 4년여 동안 정부와 정치권 및 현대중공업에 재가동 건의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군산시-현대중공업 3자간 실무협의를 다섯 차례나 갖으면서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 협상에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가예산 확정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결위에서 신영대 국회의원 공조를 통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필요한 마중물 예산인 산업부 '조선업 기능인력 양성사업'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협상에 급물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이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9개월이 남았다.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군산은 유례없는 고용·산업위기를 겪어 왔다. 코로나9 여파까지 미증유의 상황속에서도 27만 군산시민들은 연대와 지력을 통해 군산형 일자리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라는 새로운 대전환의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남은 기간 군산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5월 10일 들어서는 새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군산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정상적으로 실현되어 군산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